

# 학생 볼모로 건설사 민원 풀려고 하다니...

### 중흥건설, 2017년 교육청 등과 순천 삼산중 신대지구 이설 협의 상관없는 선월지구 하수처리장 문제 연계하며 학교 신축공사 미뤄 순천시·도교육청 독촉에도 착공 않고 버티기...내년 3월 개교 차질

순천에서 신대지구와 선월지구 등 택지 개발사업을 진행중인 중흥건설이 중학교 이설 공사를 차일피일 미루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흥건설은 애초 내년 3월까지 순천 원도심에 위치한 삼산중을 신대지구로 이설하기로 지난 2017년 11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전남도교육청-순천시 등과 협약을 맺었다. 협약 이행을 위해서는 울초 이설공사를 착공해야 하지만, 중흥측이 학교 이설과 인근 택지지구의 하수처리장 문제를 연계해 일괄 타결해줄 것을 조건으로 내세우며 착공을 미루고 있다.

중흥건설은 삼산중을 신대지구에 새로 지어 도교육청에 기부하는 대신 기존 삼산중 부지를 양여받아 아파트 건립 등 개발을 하기로 했으면서도, 이 사안과 무관한 선월지구 택지개발 인허가(하수처리 문제)에 순천시가 협조하지 않는다면 '학교 신축 공사 거부'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학생을 볼모로 시와 교육청 등을 압박해

민원사업을 해결하려는 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대목이다.

20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 1월에만 2차례 중흥건설에 공문을 보내 "삼산중 정상 이전 개교를 위해 협약대로 조속히 신축 공사에 나서달라"고 촉구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

순천시도 중흥건설에 조속한 공사 착수를 요구했는데 이번에는 엉뚱한 내용의 회신이 돌아왔다. 중흥건설측이 "신대지구와 이웃한 선월지구 개발로 생겨나는 하수 처리 문제를 학교 이설공사 시행과 연계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온 것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자신들이 개발하는 선월지구의 하수를 자체처리장을 지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순천시공공하수처리장으로 관을 연결해 처리하게 해주거나, 원인지 부담금 명목으로 100억원 정도를 시에 납부하겠다는 게 중흥 측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선월지구 하수 문제는 애

**엇갈린 주장 보니**

중흥건설측  
"학교 이설과 선월지구 하수처리 연계하기로 사전에 일부 양해"

전영재 전 순천부시장  
"학교이설의 다른 합의·양해 없어 연계 요청 말 안된다며 거절했다"

초 학교 이설과 전혀 상관 없는 사안인데다 만약 중흥 측 요구대로 선월지구 하수를 순천에서 처리하면 처리 용량이 초과되는 물론 비용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중흥건설 측은 학교 이설에 관한 협약서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학교 이설과 선월지구 하수처리 문제를 연계기로 사전에 일부 양해가 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학교 이설 협약서 작성 이전인 지난 2017년 5월께 당시 전영재 순천 부시장과의 면담에서 중흥 측은 선월지구 하수를 순천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계해 처리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는 것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선월지구에 협오시

설의 하나인 하수처리장을 짓는다는 것은 우리 보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와 다름없다. 민원 문제, 분양 문제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선월지구 하수처리 문제가 순천시와 협의되지 않는다면 학교 이설 공사도 없다는 게 회사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당시 면담자였던 전영재 전 순천 부시장은 "(택지개발)인허가권자인 광양만권의 요청을 받고 중흥 관계자와 학교 이설 문제를 협의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학교 이설 문제 외에 당시 어떠한 합의도, 양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전 부시장은 "당시 중흥측 최고위 관계자가 불쑥 '선월지구 하수 문제를 학교 이설과 연계해달라'는 요청을 하길래 빠따친다(바꿔치기)는 건 말도 안된다며 단칼에 거절했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체와 순천시 등은 선월지구 하수처리장을 별도로 신설하라는 시의 방침을 따를 경우 자체 예산보다 100~200억원의 추가 비용은 물론 기피시설 설치에 따른 각종 민원, 사업성 하락 등을 감안해 중흥이 버티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영호 기자 khh@kwangju.co.kr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영광 성폭행 사망사건 여고생 친구들 "가해자들 강력처벌해 달라" 국민 청원

'영광 여고생 성폭행 사망사건' 피해 여학생 친구들이 가해자들의 강력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영광 여고생 사건 가해자들 강력 처벌해주세요'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 게시물은 20일 오후 7시 현재 7만 7000명이 동의했다.

자신을 피해자의 친구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15일 법원이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2명의 '치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자 납득할 수 없다며 강력처벌을 촉구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사,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18)군에게 징역 단기 4년 6개월~장기 5년, B(17)군에게 단기 2년 6개월~장기 5년을 선고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13일 새벽 영광

군 한 모텔에서 C(16·고1)양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뒤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검 결과 C양의 체내에서는 치사량에 이르는 혈중 알코올농도 0.405%가 검출됐다.

법원은 이들이 의도적으로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강간한 혐의는 인정했지만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예상하고도 방치한 채 모텔을 빠져나왔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청원인은 "가해자들이 모텔에서 빠져나온 뒤 후배들에게 '안 일어나면 버리고 오고 일어나면 데려오라'고 시키기도 했다"며 "가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게 하고 방치해 친구를 사망까지 이르게 한 것이 분명함에도 치사 혐의가 무죄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A군 등은 1심 판결 후 양형 부당함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항소할 방침이다.

/김홍희 기자 kimyh@kwangju.co.kr

# '스쿨 미투' 불기소 교사 12명 교단 복귀 여부 관심

광주교육청 조만간 심의위 "상당수 복귀 힘들 것" 전망도

제자들을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광주 교사들 가운데 12명이 최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으면서 이들의 교단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광주지검으로부터 교사 성범죄 관련 수사결과 통지서를 받고 조만간 감사처분 심의위원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교사 개개인에 대한 구체적 수사 및 감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정해 학교 법원에 징계를 요구하기 위한 절차다. 이 때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는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교육청 인력에서는 교육청 처원의 징계수위가 결정되기 이전이지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교사 12명 가운데 상당수

가 교단에 복귀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범죄인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이뤄지는 수사과 달리 징계의 경우 학교 안정성·학생 보호에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가령 여제자 어거 등 신체 일부에 손을 댄 경우 등 경우에 따라 검찰 불기소 결정으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있다라도 교육당국 징계는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교육부 등 교육당국이 성 관련 비위 교원의 경우 파면과 해임으로 처분하도록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불기소 처분된 교사 12명의 경우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감봉·정직 나아가 해임·파면 처분 요구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은 학교법인 징계 결정에 대해 교육부 소청심사,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스텝미투(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던 광주 사립 A·B 고교 교사 21명 가운데 9명은 기소,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영호 기자 khh@kwangju.co.kr



**너릿재터널 차량 전복** 20일 오전 11시께 화순군 화순읍 너릿재터널 광주방면 편도 2차로에서 40대 여성운전자 차량이 돌던 갈로퍼 차량이 넘어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운전 미숙으로 터널벽을 들이받아 발생한 단독사고로 보고 있다.

**실종된 곡성 농장주 5일만에 저수지에서 시신 발견**

지난 15일 실종된 곡성 농장주의 시신이 실종 5일 만에 곡성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다.

20일 곡성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4시40분께 곡성군 한 저수지에서 농장주 홍모(59)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16일 가족들의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홍씨와 차량 이동 동선이 똑같은 고물상 김모(49)씨를 지난 18일 밤 10시50분께 광주시 서구에서 강도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지난 15일 김씨는 홍씨를 흥기로 3차례 찌르고 예금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김씨는 홍씨의 고물을 놓고 값을 흥정하던 중 자신을 무시하는 말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술 먹고 돈 없다 '배재라 중년들' 광주서 잇따라 검거

술과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무전취식' 범죄를 저지르는 중년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20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8시40분께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술집에서 양주 1병과 맥주 1병 등 8만4000원 상당 술값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조모(53)씨가 입건됐다.

조씨는 "돈이 없다"며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검거됐다.

같은 날 오후 7시께 광주시 북구 우산동 모 노래방에서는 강모(63)씨가 술값 3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업주에게 신고 당했다.

강씨는 무전취식 혐의가 100여건에 달했으며 이중 40건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무전취식을 상습적으로 일삼은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7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나이트클럽에서 술값과 안주비용 등 98만원을 내지 않은 조모(40)씨도 사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성폭행한 BJ·홍기 휘두른 피해여성 나란히 경찰서행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30대 인터넷 개인 방송인(BJ)과 이에 대해 홍기를 휘두른 피해 여성이 나란히 경찰서행.

○...20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인터넷 방송인 A(36)씨는 지난 15일 오전 8시50분께 광주시 서구 자신의 원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있던 B씨를 성폭행

했고, 잠결에 이상한 점을 느낀 B씨는 반항하며 주방에 있던 홍기를 휘둘러 A씨의 복부 등에 상처를 입혔다는 것.

○...출동한 경찰은 둘 다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B씨에 대해서는 "자신을 방어할 목적으로 홍기 휘둘러 부상을 입힌 것"을 인정하고 "행동"이라며 체포 이유를 설명.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